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대비 감염병·온열질환 예방수칙 안내

- 출국 전 홍역 등 예방접종 권고, 현지에서 개인위생과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강조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대회 개최를 앞두고, 월드컵에 참가하는 우리 선수단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및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안내하였다.

※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 16개 도시에서 분산 개최, 대한민국(A조) 경기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와 몬테레이 지역에서 진행(월드컵 기간 : '26.6.11.~7.19.)

이번 월드컵은 미국·캐나다·멕시코 3개국 16개 도시에서 개최되며,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와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됨에 따라 감염병과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등)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

특히 멕시코를 중심으로 홍역이 지속 유행하고 있으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및 Dengue열과 같은 모기매개감염병에도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26년 총 34,176명(인구 10만명당 발생률 7.57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25년 4.94명), 미국도 '26년 1,792명(4.23 기준)으로 유행 지속 중임('25년 총 2,288명)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홍역이 유행 중으로 지역별 집단감염, 산발적 발생이 지속 보고 중이고, A형간염은 멕시코에서 풍토적으로 발생하여 해당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출국 전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을 권고하였다.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홍역	▶ 홍역 백신 접종력을 확인하고 접종력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백신 접종 - 면역의 증거*가 없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적어도 1회 접종 * 면역의 증거: 1967년 이전 출생자, 홍역 확진을 받은 경우, 홍역 항체가 확인된 경우, MMR 2회 접종력이 있는 경우 ※ 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가능 (어린이 표준접종시기: 1차접종 생후 12~15개월, 2차접종 4~6세)
A형간염	▶ 권장대상: 북중미지역 여행자, 월드컵 선수단 및 응원단 등 ▶ 접종기준 1) 만 40세 미만은 항체검사 없이 백신접종 권고 ※ 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 지원 가능 (어린이 표준접종시기: 생후12~23개월 1차접종 후 6개월 뒤 2차접종) 2) 만 40세이상 대상은 항체검사 실시 및 항체가 없는 경우 접종 권고 (1차 접종은 여행 계획 즉시 접종, 불가피한 경우 출발 당일이라도 접종) * 성인은 1차 접종 후 6~12개월(백신에 따라 6~18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 실시

현지 체류 중에는 ▲손씻기, 기침예절,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며 끓인 물이나 생수 등 안전한 물을 마셔야 한다. 아울러, ▲모기가 옮기는 뎅기열,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치쿤구니아열, 웨스트나일열, 말라리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모기기피제, 밝은색 긴팔 상의와 긴바지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름철 야외 활동이 많은 만큼 온열질환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물을 자주 마시고, 양산이나 모자로 햇빛을 차단하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귀국 시에는 기침, 발열이나 발진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귀국 후 수일 이내 감염병 의심증상(발열, 발진, 근육통, 설사, 구토, 기침 등)이 있을 경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하여 최근 여행한 지역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를 통해 감염병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크루즈선의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집단감염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해당 질병이 유행하는 지역(아르헨티나, 칠레 등)을 포함하여 인근 국가 여행 시 설치류 노출이 가능한 장소*의 출입을 자제하고, 설치류의 사체, 배설물, 타액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농촌, 산림, 캠핑장, 장기간 비어 있던 숙소, 창고 등에 출입 자제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고 야외 응원이 동반되는 월드컵 특성을 고려할 때, 감염병뿐 아니라 온열질환 예방이 중요하므로, 선수단과 우리 국민들께서는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낮시간에는 수분섭취와 휴식을 충분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대회가 종료될 때까지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감염병 대책반’을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유지하며 국민의 안전한 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 <붙임> 1. 2026 FIFA 월드컵 개요
2. 감염병 위험 상황분석
3. 주요 감염병 예방수칙 및 예방접종 안내문 (카드뉴스)
4.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예방 및 행동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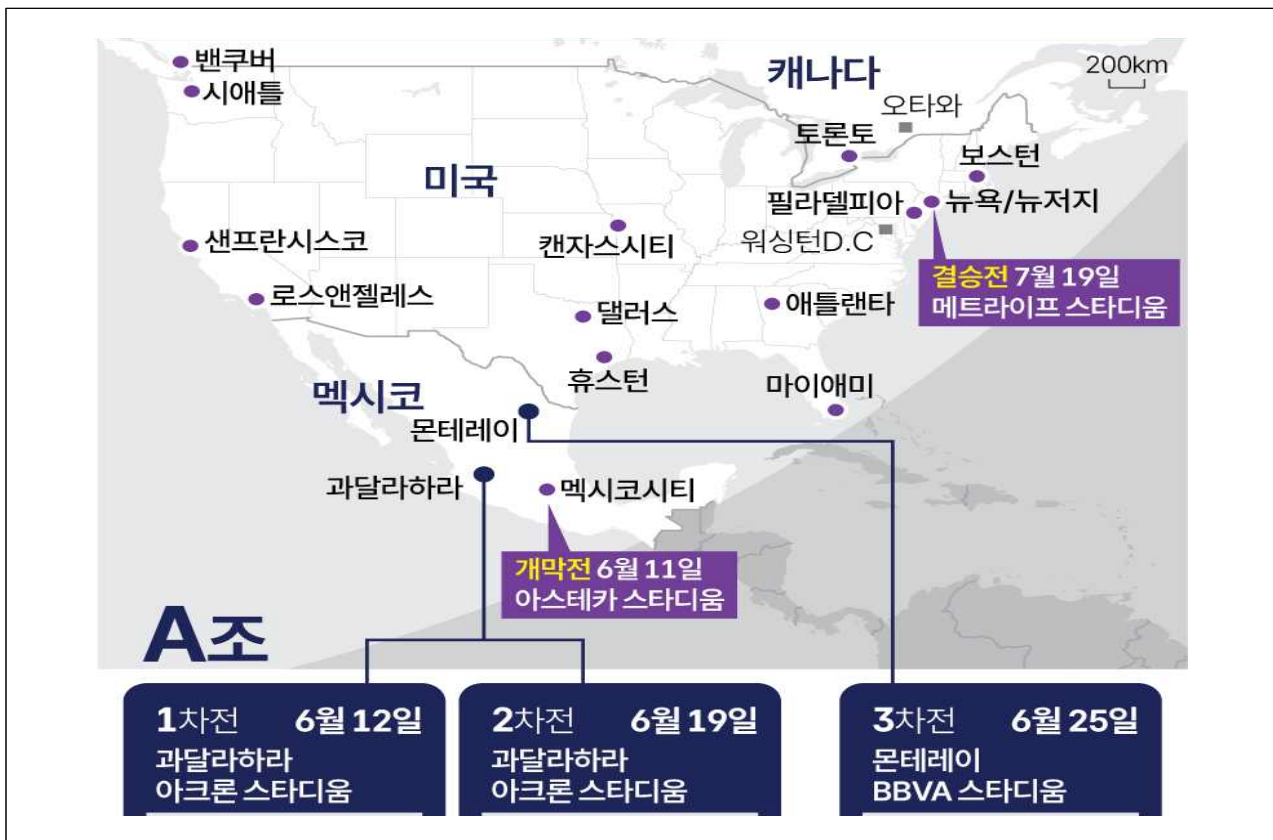
담당 부서 <총괄>	감염병위기관리국 위기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영준 (043-719-9050)
		담당자	연구관	구현숙 (043-719-9081)
			역학조사관	이혜련 (043-719-9066)
담당 부서 <협조>	질병감시전략담당관	책임자	과장	유효순 (043-719-7550)
		담당자	연구관	나경인 (043-719-7553)
			역학조사관	김희경 (043-719-7555)
			역학조사관	최시원 (043-719-7559)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성순 (043-719-7950)
		담당자	역학조사관	박신영 (043-719-7736)
			역학조사관	오정현 (043-719-7956)
	종합상황실	책임자	실장	김경호 (043-719-9300)
		담당자	조사관	김화미 (043-719-9382)
			주무관	주현동 (043-719-9370)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형민 (043-719-7140)
		담당자	팀장	김동근 (043-719-7150)
	감염병정책국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	책임자	과 장	여상구 (043-719-7160)
		담당자	연구관	권정란 (043-719-7162)
	감염병위기관리국 검역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옥수 (043-719-9200)
		담당자	연구관	김자은 (043-719-9210)
	감염병위기관리국 신종감염병대응과	책임자	과 장	민유정 (043-719-9100)
		담당자	연구관	차정옥 (043-719-9130)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3-719-8350)
		담당자	사무관	이혁진 (043-719-8365)
	건강위해대응관 기후보건 · 건강위해대비과	책임자	과 장	안윤진 (043-219-2950)
		담당자	사무관	안대식 (043-219-2951)

붙임 1

2026 FIFA 월드컵 개요

- 행사명 : 2026 FIFA 월드컵
- 기간 : 2026. 6. 11.(목) ~ 7. 19.(일) (39일간)
- 장소 : 미국(11개)·멕시코(3개)·캐나다(2개)(총16개 도시, 104경기)

행사명	2026 FIFA 월드컵(FIFA World Cup 2026™)
대회기간	2026. 6. 11.(목) ~ 7. 19.(일) (39일간)
개최국	미국(11개)·멕시코(3개)·캐나다(2개) 16개 도시, 104경기
한국 조편성	A조(체코, 멕시코, 남아공)
예상 응원단 규모	선수단 약 200명, 공식·응원단 등 포함 약 3만명 이상 예상



□ 감염병 위험 상황분석

- (홍역) 일반국민의 위험은 낮으나, 고위험군*에서는 제한적 전파 및 중증 가능성 있음

* 예방접종력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임산부, 면역저하자, 6세미만 영아는 특히 주의 필요

- (매개체감염병 및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현지 감염 가능성은 있으나, 국내 유입 후 지속 전파될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감염병 상황평가

- ▶ (홍역)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홍역 유행 중으로 지역별 집단감염, 산발적 발생이 지속 보고 중, 캐나다는 홍역 퇴치국 지위를 상실(25.11.)하였고, 미국과 멕시코는 WHO에서 지위 유지 여부 재평가 예정
- ▶ (매개체 감염병) 멕시코는 Dengue 풍토병 국가로 최근 4주 평균 대비 주간 발생(12주 1,114명) 17% 증가, 남부 2개 주에서 치쿤구니아열 산발적 발생(15명) 보고(4.18.기준) 미국·캐나다는 치쿤구니아열·Dengue 비풍토병 국가로 대부분 해외유입으로 보고, 단, 미국의 모기·진드기 활동 시기(6-7월)로, 웨스트나일열, 라임병도 주의 필요
-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미국·캐나다 다수 식중독 사례 보고 중, 특히 멕시코는 전 지역에서 캄필로박터, 살모넬라 등에 의한 식중독 지속 보고, A형간염은 풍토병이며, 장티푸스는 멕시코 남부·농촌 지역에서 발생 보고

※ 멕시코 방문 시 A형간염 백신 접종은 필수 권고(미국·캐나다), 장티푸스 백신 접종 권고(미국)

- ▶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 풍토국가(아르헨티나, 칠레 등 남미)를 방문 여행객을 통한 산발적 유입 가능성은 상존하므로, 관련 지역 여행객 대상 안내 및 감염병 발생 모니터링 철저

※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은 국내에서 보고된 바 없으며, 주로 북아메리카 지역에서 발생, 국내에서 발생하는 신증후군출혈열과는 같은 한타바이러스 속(Genus)이나 종류가 다른 바이러스이며, 매개체도 다름

2024.7.26.



질병관리청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5대 예방수칙



첫째, 기침예절 실천

- ▶ 호흡기 증상 있을 시 마스크 착용하기
- ▶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 기침한 후에는 비누로 손씻기
-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둘째,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 ▶ 외출 전후, 식사 전후, 코 풀거나 기침·재채기 후, 용변 후 등
- ※ 비누로 손 씻으면, 호흡기 감염병 5명 중 1명이 예방 가능



셋째,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기 않기



넷째,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하기

- ▶ 2시간 마다, 10분씩 환기
- ▶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서는 출입문과 창문을 동시에 열기



다섯째, 발열 및 호흡기 증상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받기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6대 예방수칙!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란?

세균, 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로 인해 주로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장관증상을 보이는 질환

주요 예방수칙



올바른 손씻기 생활화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충분히 씻어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고기·채소 등 도마 분리 사용

2025.11.10. 질병관리청

전세계 유행 중 해외여행 전·후 홍역 예방은 필수!

1/8

2025.11.10. 질병관리청

홍역은 어떤 질환일까요?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기침, 재채기 등 비말과 공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면역이 없는 사람이 환자와 접촉 시 90% 이상 감염될 수 있으나,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기침

발열

결막염

코통

구강 내 반점

• 주요 증상(발병기 7~21일)
초기에는 감기처럼 발열, 기침, 코통 등 증상이 나타나고, 이후 열감에서 시작해 몸 전체로 **홍반성 발진**이 발생합니다.

2/8

2025.11.10. 질병관리청

홍역, 방심하면 합병증으로 이어져요!

기관지 폐렴

급성 뇌염

중이염

설사

• 발열, 발진 외에 합병증(기관지 폐렴, 급성 뇌염 등) 발생이 가능하며, 특히 1세 미만 영유아는 중증 위험이 높습니다.
홍역 예방을 위해 유행지역 여행은 자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출국 전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3/8

2025.11.10. 질병관리청

홍역 해외 발생현황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예방접종 미접종 및 접종 연기로 전 세계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22년 약 17만 명 → '23년 약 32만 명 → '24년 약 38만 명

지역별 주요 발생 국가

-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
- 유럽: 키르기스스탄, 루마니아, 러시아, 프랑스 등
-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팔리만, 몽골,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 아메리카: 캐나다, 멕시코, 미국 등
- 동남아시아: 인도, 태국, 네덜 등
- 중동: 예멘,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 출처: WHO, '2015 3월~10월까지 홍역 발병 국가, '2015 10월 보 2114
* 국내에서도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통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해외 체류 중 감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8

2025.11.10. 질병관리청

홍역 국내 전파 가능 경로는?

해외여행

가정, 직장, 의료기관, 어린이집·학교

홍역 환자

• 우리나라는 홍역 퇴치 인증(who, '14년)을 받았으나, 면역이 불충분한 영유아·성인이 해외에서 감염되어 가정, 의료기관, 학교 등으로 전파될 수 있습니다.
• 홍역 환자는 등교·출근을 자제하고, 진료 등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5/8

2025.11.10. 질병관리청

해외여행 시, 홍역 예방수칙

여행 전

- 홍역 예방백신(MMR) 2회 접종력 확인
- 접종력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접종 기록이 없거나 기록이 불확실하다면 출국 최소 4주 전 의료기관 방문하여 4주 간격 2회 접종

여행 중

-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여행 후

- 발열, 발진 등 의심증상 발생 시
- 입국 시 관공에게 알리기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단안검의 결과 제시(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

6/8

2025.11.10. 질병관리청

홍역 예방접종 기준, 한눈에 확인하세요!

<연령별 홍역 예방접종 기준>

연령	접종 방법
생후 0~5개월	접종대상 아님
생후 6~11개월 (가속접종)	1회 접종 * 홍역 예방 국가 출국, 학원 참가 전 접종 * 생후 12개월 이후 표준접종 일정에 맞춰 2회 접종 필요
생후 12~15개월 (표준접종)	1차 접종
4~6세 (표준접종)	2차 접종
청소년 및 성인*	※ 면역의 증가가 없는 경우 최소 4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1차도 1회) 접종

* 196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 홍역에 대한 자연면역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접종 불필요

※ 홍역 면역의 증가가 없는 경우
고위 예방접종 기록이 없으면서 홍역에 걸린 적이 없거나 홍역 완치가 확인되지 않는 196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7/8

2025.11.10. 질병관리청

해외여행 전·후 홍역 예방은 필수!

건강한 여행, 안전한 일상!

홍역 예방수칙으로 함께해요!

8/8

어디에나 있는 모기매개감염병을 조심하세요!

해외 발생



덴기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치쿤구니아열,
웨스트나일열, 말라리아

3시간마다
모기기피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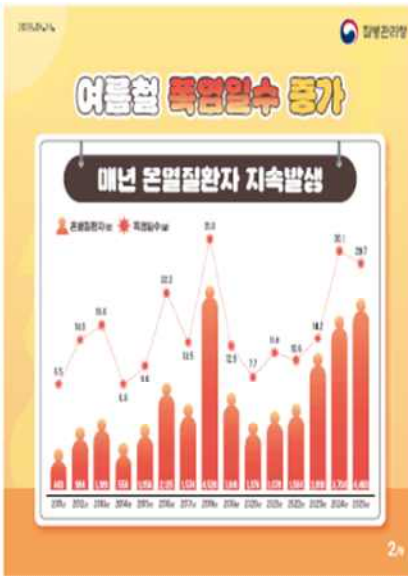
야외·야간활동 시
**밝은색
긴 옷 착용**

발열, 오한 등
**의심증상 시
진료받기**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을 조심하세요!

1/4



무더운 여름, 온열질환 발생주의!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럼증,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열사병과 열탈진이 있습니다.

*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의 추정 사례는 대부분 열사병

3/4

폭염시 야외작업 자제!

날 12시~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기

최근 10년간(2016~2025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결과에 의하면, 온열질환자의 실외작업장과 논밭에서 45.4% 발생 48.7%는 낮 시간에 발생!

4/4



어린이, 학생도 주의 필요!

어린이, 학생 또한 폭염 시 과도한 운동과 야외 활동을 피하고, 특히 어린이가 차 안에 잠시라도 혼자 있지 않도록 보호자의 주의가 필요

6/4

온열질환 응급조치, 이렇게 하세요!

의식이 있는 경우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수분 섭취
-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의식이 없는 경우

- 119 구급대 요청
- 시원한 장소로 이동
-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 병원으로 후송

* 의식이 없을 때 물줄을 마시게 하면 질식사 위험이 있으니 주의 필요

7/4

폭염대비 건강수칙 3가지

시원하게 지내기

사워 자주 환기
오후 3시부터 자전
냉기(환신, 모기)
덜컹하고 뒤편
세탁의 기온은 옷
벗기

물 자주 마시기

물줄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수분 섭취하기
신장질환자는
음식과 상담 후
섭취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더운 시간대
휴식하기
건강상태를
생각해 활동강도
조절하기

8/4

폭염대비 건강수칙과 함께 건강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9/4

◆ 일반적인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마스크 착용 및 개인적인 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보건인력 환자 관리 시 상황(치료, 간호, 이송 등)에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감염 예방조치 등의 관리를 적절하게 수행

◆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발생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

- 방문 전,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유행 또는 발생지역(아르헨티나, 칠레 등) 확인
- 농촌·산림·캠핑장·장기간 비어 있던 숙소·창고 등 설치류 노출 가능 장소에서는 환기, 소독, 개인보호구 사용을 우선 권고
- 설치류에 오염된 지역에서 안전한 청소 방법 사용(설치류 분변을 건식으로 쓸거나 진공청소기로 청소하는 행위 금지, 청소 전 오염 지역을 수분으로 충분히 적시기)
- 방문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건물 내 설치류 유입 차단(틈새 봉인)
- 설치류의 사체, 배설물, 타액에 노출되지 않게 주의
- 식품을 밀봉 용기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설치류 유입 차단(틈새 봉인)
-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의심되는 사람과 접촉 금지
 -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과 접촉금지
 - 의심 증상을 가진 사람의 물건 등과 접촉 금지

◆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 발생지역 방문 후 주의사항

- 귀국 후 6주간 발열·근육통 등 관련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먼저 상담 문의
-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반드시 건강상태질문서 제출